| 현불 논단 |

틱낫한 스님을 기리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한국 숭산행원 스님과 더불어
4대 생불 불리신 틱낫한 스님
1월 21일 열반…전 세계 애도

선지식 만난다는 것은 큰 福田
정법의 한 자락을 마주하는 일

다시는 볼 수 없는 스님 기리며
부지런히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
틱낫한 스님 속환사바 하십시오

만공 선사의 3대 발원 중 첫 번째가 '삼세제불의 말세정법을 옹호합시다' 이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2500여 년이 지난 말법시대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육성법문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짓지 못한 말세 중생들이다. 하지만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면 말세에도 정법을 들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경허, 만공 스님의 법맥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등 근본불교 국가에서도 근현대에 적지 않은 선지식들이 출현했고 불교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새롭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방법이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인류의 화합과 개개인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식돼가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선지식들이 우리시대를 함께 하시니 티베트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이자 세계적으로 불교의 상징으로 모셔지는 달라이라마와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2004년 입적하신 한국의 숭산행원 스님, 그리고 1월 21일 열반에 드신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다. 이분들은 명실공히 '세계 4대 생불' 또는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 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이 분들은 일생동안 어둠 속 등불처럼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타는 가슴과 삶의 고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감로수 같은 가르침으로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신 선지식이다. 세속의 욕망과 미움에 물들어 국통의 국자처럼 무감각해진 현대인에게 정법과 진리의 가르침으로 국 맛을 아는 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불성을 깨우치게 하는 참 스승들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흘정도 티베트 사찰에 머물며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그 분의 법문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숭산행원 스님 회상에서 하안거 한 철을 온전히 살았으며, 프랑스 자두마을에 가서 틱낫한 스님의 체취를 느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공양하는 기회도 가졌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큰스님 한 분을 친견하는 일이 아니다. 현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전이며 최고의 스승인 것이다. 바로 정법의 한 자락을 만나는 일인 것이다.

어느 곳이든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지의 영험함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도성지에 가면 2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처님을 느끼고 부처님께서 걷고 앉고 누우셨던 그 자리에 손과 발을 대면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을 받게 된다. 부처님께서 사리를 남기신 뜻이 바로 이런 감격과 감동으로 말세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선지식들은 삼보의 하나인 승가의 핵심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중생들과 현실에서 함께하는 부처님의 분신에 다름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한국인들과 특히 인연이 깊은 분이다.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 때마다 많은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하시며 법문과 수행의 길을 지도하셨다.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우셨던가. 틱낫한 스님의 책은 그 어떤 국내외의 스님들보다 많이 출간되었다. 백 만권이 넘게 읽힌 책들도 있다. 하지만 스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책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겠지만, 스님의 육신은 이제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다시는 뵐 수 없다. 더 부지런하게 선지식을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아쉽다.

틱낫한 스님! 속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송마나의
시절인연

임인년 새해 교향곡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 교향곡' 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바람 혼(魂)으로 심금(心琴)을 타는 교향악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오선지 위 음표를 연주했지만 오늘부터 악보 없는 '임인년 신세계 교향곡' 을 연주하렵니다.

선(線) 없는 오선지 위로 영묘한 불음(佛音)이 튀어 오릅니다. 현(絃) 없는 줄 위로 현묘한 묘음(妙音)이 날아오릅니다. 몸에 피리구멍을 뚫어 묘음이 드나들고, 마음에 거문고 줄을 메어 불음이 순유하도록 연주하렵니다.

아름다운 텍스트는 발음되기 전에 들리고, 아름다운 악보는 연주되기 전에 들린다고 합니다. '새해 교향곡' 은 '새' 의 언표에 깃든 소리 없는 하모니. '새' 의 내벽에 새겨진 퍼즐을 맞춰야만 교향악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새' 가 '새롭다(新)' 라는 뜻으로 다가섭니다.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령에는 아직도 짐승처럼 꼬리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압력과

그림 · 최주현

관성에 젖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자, 정신적 미개인입니다. 두발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미물입니다. 태양이 솟는 신세계에서는 꼬리를 자르고 바로 서는 직립인(直立人)이 되고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東)을 '새' 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을 새쪽, 동풍을 샛바람이라 했습니다. 새쪽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새벽, 서라벌이 생겨났습니다. 언젠가 새쪽, 동방에서 의인(義人)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는 새(璽), 제인(帝印) 곧 도장을 일컫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도장을 국새(國璽), 나라님 도장을 옥새(玉璽)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도장, 불인(佛印)을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부처님 인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새' 는 사이(間)의 준말입니다. 콩은 두 쪽 사이에서 싹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그 윽한 다리 사이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오른쪽 이데올로기도 왼쪽 이데올로기도 아닌 중도의 자리에 참 말씀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밤에 노숙하면서 갈증으로 해골에 괸 물을 달게 마시고, 새날이 밝아 토악질하는 순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운 물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진여(眞如)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본디 그 모습이란 법어를 가슴에 새깁니다.

'새' 의 금싸라기(새)들을 제련하여 '새해 교향곡' 을 연주하겠습니다. 〈작가〉

社 說

갈림길에 놓인 불교 여성포교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동행이 깨졌다. 개발원 창립 22년만의 일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공고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알렸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했으나 이사진들이 따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며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중단된다. 개발원 이사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사찰, 소속사찰, 각종 위원회에서 소임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두 기관의 관계는 수년전부터 위태위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개발원장 선출을 두고 포교원의 임명권에 반발한 개발원 측이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이뤄졌다.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범해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메워지지는 못했다. 결국 두 기관은 각각 '해지' 와 '독립' 이라는 수사(修辭)로 서로의 이별을 표현했다.

헤어짐을 택한 포교원과 개발원은 각각 서로의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포교원은 기존 개발원 회원 중 종단 지침에 따른 불자들을 포함한 조계종 여성포교단체 설립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개발원은 범종단화를 선언하며 발전특위 구성 계획 등을 밝혔다.

원팀으로 함께 한 두 기관이 이젠 서로 갈림길에 섰다. 지난한 갈등 끝에 선 길이다. 이제 가는 길은 달라도 여성포교라는 큰 뜻은 갈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마음치유 자비실천에 박수를

한국사회 곳곳에는 아픔이 존재한다. '헬조선' 이란 용어가 난무하던 2018년, 노량진에는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마음충전소' 가 개소했다. '헬조선' 을 '힐조선' 으로 바꾸기 위한 불교계의 작은 노력이었다.

그 노력을 주도했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또 다른 노력을 시작했다. 바로 1월 27일 노숙인들의 터전인 영등포 쪽방촌에서 '마음충전소' 를 개소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 하면 우리는 물적 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왔다. 당장에 설명절을 앞두고 떡을 비롯해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것은 '힘내라' '할수 있다' 는 격려가 아닐까 싶다.

불교 복지에 있어 사상적 근원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실천이다. 부처님의 자비실천은 물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듣고, 이야기 하고, 어루만졌다. 내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대기설법이 나왔다.

자비명상이 추진하는 마음충전소가 이러한 부처님 자비실천의 일환이다. 이 곳에서는 상담 뿐만 아니라 불교명상을 이들에게 알려, 이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 선택의 위기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고자 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왜 고통받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비, 나눔이 시작된다.

'마음충전소' 에는 스님들이 두 분 상주하며 매일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또 다른 마음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소외받는 이들이 있는 곳에 생겨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4, 821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개편프로그램안내
불기 2566년
2022년 2월 7일!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월, 화, 수) 08: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20:30



우리가 몰랐던 한글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2:00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 강신주의 무문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